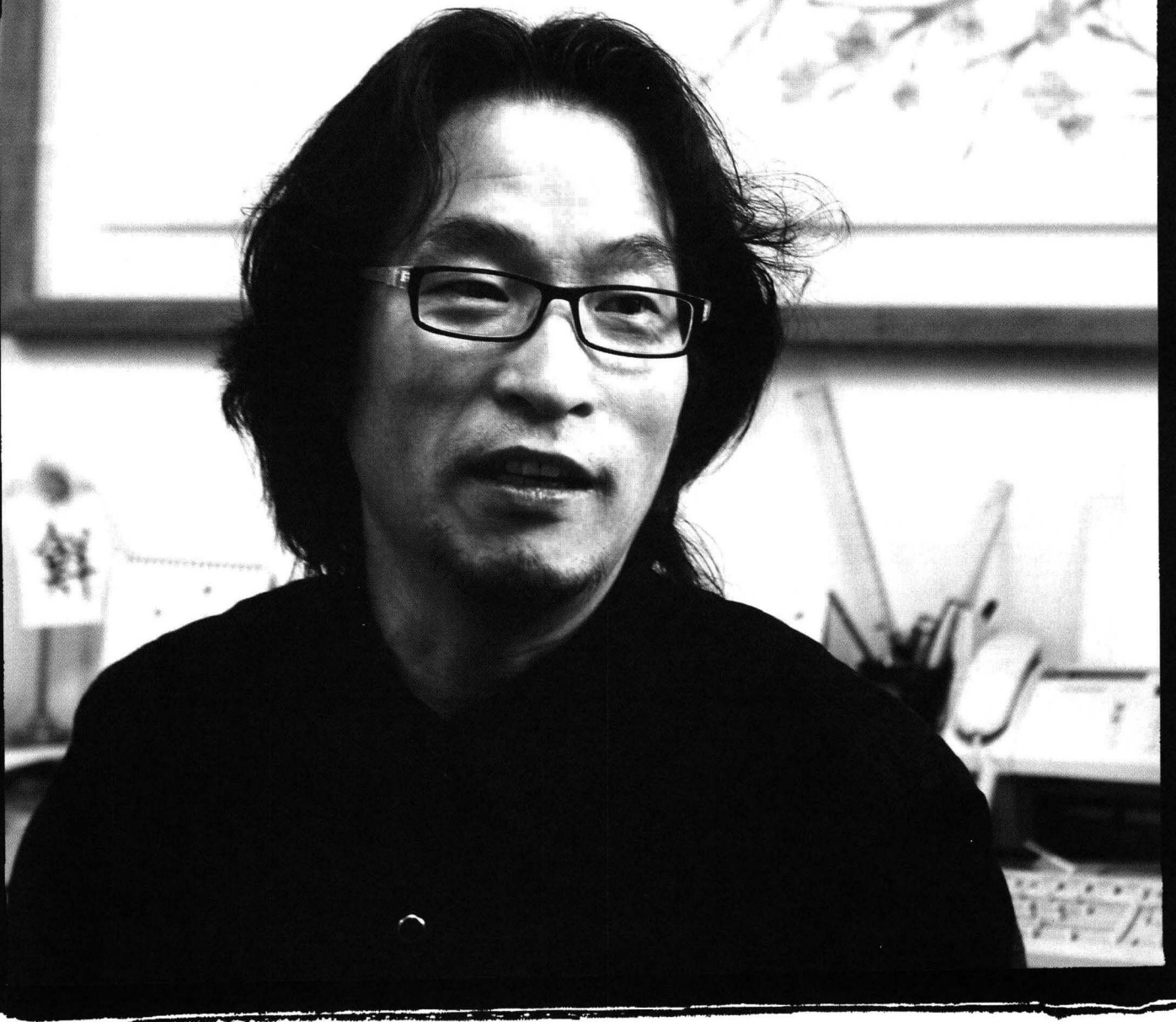


강병인 캘리그래피(Calligraphy) 작가

“한글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날까지 나의 붓은 춤추리라”



붓글씨로 시원스레 ‘술통’이라고 써있는 문을 열기 전부터 묵향이 그윽하게 퍼져 나온다. 작업실의 반을 차지할 정도의 널따란 나무책상은 캘리그래피 작가를 대변해 준다. 종류가 제각각인 붓들이 가지런히 정열 돼 있고, 용기종기 모여 있는 너댓 개의 벼루들은 방금 먹을 갈았는지 촉촉하게 젖어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할 시안을 연습해 놓은 수십장의 한지들은 다행히 수북이 쌓여 넘치는 파지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았다. 술통의 의미는 ‘술술 잘 통함’의 줄임말이다. “제가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웃음) 처음 사람을 만나면 서먹서먹한데, 술 한 잔 나누면 금세 술술 잘 통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활한 소통역할을 하는 게 술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술의 좋은 느낌을 담았습니다.”

캘리그래피 작가 강병인 씨. 현재 술통 대표이자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하려는 캘리그래피 작가를 양성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영원히 묵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며 ‘영묵(永墨)’이라는 호를 스스로에게 지어 준 게 어쩌면 지금의 운명을 결정지었을까도...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 우연이 필연이었다고 설명할 때가 있다. 양봉을 하던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서예반으로 오면 매일 꿀을 주겠다고 선생님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서예를 시작한 게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연이다. 광고대행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캘리그래피 길을 걷기 시작한 지 5년째다. 초등학교 때부터 30년 넘게 서예를 했으니까 손에 붓을 쥐고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으리라.

“캘리그래피는 순수서예가 아니라 상업적인 서예를 말합니다. 즉 디자인이 접목된 서예지요. 글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서예를 바탕으로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디자인 컨셉에 따라 글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최초 작품은 광고대행사 동료들과 함께 작업했던 ‘해바라기’라는 교회 행사 포스터였고, 책표지로서는 《빨난 꼬끼리》가 처음이다. 작업실 한 칸에 마련된 서가에는 책표지 타이틀을 캘리그래피로 작업했던 책들이 진열돼 있었다. 고통을 겪으며 낳은 글꼴들은 저마다 생김새가 모두 달랐다. 그는 책에 동화되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되도록 길게 갖는다. 그런 다음 책 내용과 닮은 글꼴을 생각한다. 글꼴만 보아도 책 내용을 짐작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책표지로서 캘리그래피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다. 때문에 제아무리 마스터라 해도 한 개의 글꼴을 탄생시키는 데 서른 번 이상 쓰는 것은 기본이다. 클라이언트에게는 세 개의 다른 글꼴 시안을 보여줘야 하니까 백 번은 족히 써야 한다는 얘기다.

“《사막에 숲이 있다》에서는 인간적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캘리그래피 글꼴로 표현했어요. ‘교’에서 숲을 상징하도록 만들었고, ‘사’는 사람의 의미하도록 글꼴을 만들었지요.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복’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이는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고 움직이는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자 안에 하트를 넣으면 행복이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고, ‘콩’은 콩스럽게, ‘미소’ 글자만 보아도 웃음 짓게 글꼴을 창조하지요. 단순히 붓으로 썼다고 해서 캘리그래피가 아니라 조형미가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즉 능서거나 달서가를 캘리그래피스트라



부른다. 우리는 서예를 영어로 번역해서 캘리그래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서양에서 말하는 캘리그래피는 상업적인 것이다.

강 대표도 “이는 잘못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양에서는 장식글씨를 캘리그래피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순수예술인 서예를 캘리그래피로 구분없이 함께 쓰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최근에는 ‘서예’ 자체를 영어화 하자는 여론이 있다고 한다.

작업실에는 “한글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날까지 나의 붓은 춤추리라”고 쓴 캘리그래피가 보인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글꼴의 예술성에 점점 매료된다는 그는 책 표지에 캘리그래피를 넣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캘리그래피 작가로서 그의 미덕은 절제이다. 즉 책 내용과 글꼴이 합이 들어야 수려한 캘리그래피가 생산되는 것이다.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맘에 드는 글꼴이 나오지 못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글꼴이 나오면, 그때 붓을 놓지요.”